

2025년 6월

최신

노동뉴스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 차 례 -

1. 사고예방의 첫걸음, 『중대재해 사이렌』	1
* 2024 중대재해 사이렌 (붙임1)	
2. 고용유지 일자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6
3. (주)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0
4.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14
5.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18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6. 아빠보너스제(육아휴직) 인상	2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 예고 (붙임3)	

【 붙임 】

(붙임1) 2024 중대재해 사이렌

(붙임2)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3)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 예고

1. 사고예방의 첫걸음 『중대재해 사이렌』

* 업종별·공정별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500여 건 자료 수록

-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
-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 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
 -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자료 등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 신속히 전파
- ‘중대재해 사이렌’은 개설 첫해인 ‘23년에는 4만7천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7천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계속 증가
 -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ool Box Meeting), 임직원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에 활용
-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 수록
 - 또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활용사례도 수록
 -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기타업에 대해 공정 또는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사고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
-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

* 첨부: 2024 중대재해 사이렌.pdf

참고1

중대재해 사이렌 전파 자료 (예시)

○ 중대재해 발생 알림

<p style="text-align: center;">< 건설업 떨어짐 사고 ></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중대재해 발생 알림</h3> <p style="font-size: small;">배포일시 : 2023년 10월 24일 10:30</p> </div> <p>'23년 10월 23일(월) 16:29경 부산시 남구 소재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균열보수 작업 중 약6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예방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용 호프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 중 끝속이 풀리는 것을 대비해 2개 이상의 고정점에 걸속입니다. 별도의 수작구명줄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와 결속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제조업 끼임 사고 ></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중대재해 발생 알림</h3> <p style="font-size: small;">배포일시 : 2023년 10월 26일 16:00</p> </div> <p>'23년 10월 26일(목) 08:30경 경남 창원시 소재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재해자가 절단기 제품 배출구에 칩(Chip)을 제거하던 중 제품 이송 기계와 기동 사이에 끼여 사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예방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 청소·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안전 장치 및 방호장치(기동장치에 잠금 장치 설치 등)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p> </div>
--	---

○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p style="text-align: center;">< 한파 경보 발령 ></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한파 위기경보 발령</h3> <p style="font-size: small;">배포일시 : 2024년 1월 22일 18:00</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금주 '북극 한파'로 인한 강추위로 근로자 한랭질환 발생 우려</p> <p style="font-size: x-small;">※ 23일(화) 체감온도 영하 10°C 이하로, 육안으로 근로자 보호장치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한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한랭질환 예방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복한 것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 (3겹 이상은 옷은 보온성을 높여줍니다) -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여 신체 열 손실을 줄이세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따뜻한 장소 추위를 피해 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하세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예방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주세요 주말·시외·지역·직업은 최소화하고, 중직업은 가장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해주세요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매몰사고 다발 경보 ></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안전 5월, 매몰사고 다발 경보</h3> <p style="font-size: small;">배포일시 : 2024년 5월 10일 17:15</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연이은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매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소식이 있는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시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최근 사망 사고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5.8. 경북 울릉군 굴착작업 중 토사가 흘러내려 굴착기 매몰 *24.5.9. 충북 단양군 쌓아놓은 시멘트 원료가 무너져 작업자 매몰 *24.5.9. 서울 동대문구 하수관도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매몰 <p>예방대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수 前> 지반 약화의 원인인 빗물의 침투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작업재개前> 공사종류·규모에 맞는 흙막이 구조물 등 안전조치 점검 <작 업 中> 굴착면의 안전한 경사(기울기)를 확보하여 작업 실시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p> </div>
--	--

사례1 아파트 건설현장 (충남 아산시 소재)

- 중대재해 사이렌을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에 활용
- 사무실 주 출입구에 최근 중대재해 사이렌 게시, TBM 시 사고사례 전파



중대재해 사이렌 외국어 버전 TBM시 전파

사무실 주 출입구에 사이렌 게시

사례2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 (충남 공주시 소재)

- 주간회의 시 사이렌 사고사례 등을 임직원 교육에 활용
- 사내 협력업체와의 협의체 진행 시 매일 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유, 사고발생 유사 작업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확인에 활용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하여 협력업체 협의체 교육

사이렌 유사 사고 관련 현장점검 실시

사례3 |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 관리감독자 교육 시 사이렌을 활용하여 실제 사고사례기반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 위탁 사업장 방문시 동종 업종 중대재해 사례를 선별, 소개

<p>관리감독자 전파</p>	<p>안전보건관리 위탁사업장 사고사례 안내</p>

사례4 | 사이버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소재)

- 사이렌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과 안전대책에 대해 강의 시 활용
-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를 통해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사례 등 전파

<p>산업안전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p>	<p>중대재해 사이렌 유튜브 내용</p>

고용노동부
직접운영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전국 중대재해
발생 속보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예방자료



사업주,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직접 참여 가능

사업장 소재지별 오픈채팅방 참여방법



뒷면에서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별 관할관서 확인



QR코드 스캔



오픈채팅방 입장

카카오톡에서 소재지 오픈채팅방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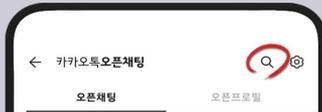
Step 1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속



Step 2

오픈채팅방
검색 클릭



Step 3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
으로 검색

Step 4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하는
오픈채팅방 입장



고용노동부

2. 고용유지 일자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추가경정예산 2,803억원 편성

-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 되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 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되어 총9개 사업, 2,803억원 규모로 의결

【세부 예산 내역】

- 총 9개 사업, +2,803억원(+0.8%) 규모로 편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54억)
 - 중장년경력지원(+43억)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300억)
 - 고용유지지원금(+111억)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43억)
 - 대지급금 지급(+1,508억)
 - 신용보증대위변제(+330억)
 - 생활안정자금융자(+149억)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66억)

■ 주요 지원 내용

① 통상·재난 대응 → 고용유지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신속 지원

- (고용둔화 대응) 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
(+300억, 자치단체 신청(업종 등 요건 심사 및 선정))
 - ①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둔화 발생업종의 지역일자리 창출·유지 위해 맞춤형패키지 지원
 - ② 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체·근로자 피해 지원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예시)

①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 ▶ (대상) 사업장 폐쇄 및 산업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
- ▶ (지원) ①정주비 + ②교통비 + ③기타(이주비 등)

②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 ▶ (대상)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지원) ①건강검진비 + ②심리상담비 + ③임금추가지원* +기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추가 지원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 보장

구분	고용유지지원금(기존)	추가지원(안)
유급휴직	월 최대 약 158.4만원 사업주 지원	근로자 100만원 추가 지원 *총 258.4만원
무급휴직	월 최대 약 158.4만원 근로자 지원	

③ 청년 희망·성장지원 패키지

- ▶ (대상)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
- ▶ (지원) ①정주비 + ②교통비 + ③문화 및 여가 활동비 + ④기타(자기개발비, 이주비 등) OR
①신규인력 채용장려금 + ②청년 신입직원 교육비 + ③교통비 + ④기타(이주비 등)

- (고용유지 지원)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111억, 2.4→3만명(+6천명))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인건비(휴업·휴직수당)를 지원(1일 최대 6.6만원, 연 최대 180일)

□ 청년·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취업대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 확대 +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254억, 10만명 → 10.7만명(+7천명))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5년 7,772억) - 1·2유형(기업지원금), 2유형(청년근속인센티브)
1유형: 취업대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유형: 빈일자리 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18·24개월 차에 각각 240만원 지원

〈추가지원 사항〉

- ① 기업지원금(1·2유형): 지급 대상 확대(+7천명, 1유형 +3,850명, 2유형 +3,150명)
* (기존) 청년 대학졸업예정자 지원 제외 → (변경) 지원 대상에 포함
- ② 청년 근속인센티브(2유형): 6·12개월차(각 120만원) 조기 지급(+3,150명)
* (기존) 근속 18·24개월차 지급 → (변경) 6·12·18·24개월차 지급(480만원 총액은 동일)

- **(중장년 맞춤형 훈련)** 산업전환, 통상마찰 등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 고용 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 폴리텍 맞춤형 훈련 확대(+43억, 2.8→ 7.5천명(+4.7천명))

- 중장년의 신속한 이·전직을 위해 단기(1~2개월) 직업훈련 과정 중심으로 확대
→ 신속 취업 연계

- * 직장에 재직 중인 중장년도 소득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말·야간 과정까지 확대 제공

- **(중장년 경력지원)**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 확대
(+43억, 910명 → 2,000명(+1,090명))

- *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② **민생** →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대지급금)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증액 (+1,508억, 10.5만명 → 12.8만명(+2.3만명))**

↳ **정부추경안(+818억) + 국회 증액(+690억) = 총+1,508억**

* **대지급금:**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체불인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부(3개월분 임금 등)를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소득근로자 대상 저리(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149억, 3.7만명 → 3.9만명(+2천명))**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2이하인 저소득근로자, 특고, 1인자영업자에게 질병·장례 등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총 3.9만명: ▲직접 용자 1.7 → 1.9만명(+2천명), ▲2차 보전 2만명('25.신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대상 확대(+66억)**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의료·장례 등) 및 필요자금(주택이전 등)을 장기·저리로 용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추가 지원 사항〉

- ① (한시 지원) 이율 인하(1.25% → 1.0%), 한도 상향(2천만원 → 3천만원)
- ② (대상 확대) 자녀양육비 신설(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자금 용자)

- **(신용보증대위변제)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 용자 상황에 어려움 가중 →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확대(+330억)**

* **신용보증대위변제:** 보증·담보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신용보증지원으로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하면 대위변제금을 지급

3. (주)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 그 결과를 5.19.(월) 발표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주)문화방송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고, 그 결과

1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 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 되어왔다.

(예시) 고인이 MBC를 대표하여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 ① 고인이 일기예보 진행자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 ②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 ③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 ④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이는 (주)문화방송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

※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①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②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 ③ 기상정보 확인, 원고와 CG 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 ④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 ⑤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으며,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

2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

고용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3.18.~4.4.)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응답자의 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

* 총1,72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 252명(14.6%)가 응답

또한,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주요 피해 사실 답변 내용 >

- ✓ ○○국은 업무 시급, 중요성 등을 이유로 특정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다들 그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쉬쉬하고 묵인
- ✓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등 사적인 농담으로 이상한 분위기 조성
- ✓ 부서 내에서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사원보다 못 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외주사 직원과 동일시하며 모멸감까지 느끼게 함

○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

3 프리랜서 중 근로자로 확인된 사례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 PD, 편집 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주)문화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

- ① (FD) 메인 PD의 지시에 따라 방송 자료 검색, 아카이브에 촬영물 업데이트, 스튜디오 진행 보조, 재연 촬영 보조 수행
 - ② (AD) 메인PD의 지시에 따른 예고 제작, 제작비 및 진행비 정산, 연출 보조 등 메인 PD의 보조(비서 역할) 업무 수행
 - ③ (취재PD) 메인PD의 지시에 따라 인터뷰, 탐문, 편집, 촬영, 회의참여 등 업무가 결정되며, 취재 대상 선정, 인터뷰 질문지도 메인 PD가 최종 컨펌 등
 - ④ (시사교양 편집 PD) 방송분 편집 업무를 편집 범위, 수정 요구 등 메인 PD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
- ※ (참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10명은 수어, 리포터, 번역 등으로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처리 실태에 맞게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

4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84백만원 (691명)의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즉시 범죄인지(4건) 및 과태료(2건, 1,540만원)부과 조치

-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 일부 직원 연차유급휴가 과소 부여
-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 납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미만 과소 부여
- 2023년 변경된 취업규칙 미신고

4.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 최근 10년간(2015~2024년) 126명 사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 3대 안전수칙: ▲밀폐공간 사전파악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

-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

*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질식재해 예방 3대 수칙>

-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②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 이와 함께, ▲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 질식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

○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원콜(One-call)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1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 (1) 분뇨처리 정화조 내부 청소 작업 (사망 1명) '23년 7월 정화조 청소(분뇨 수거 처리)를 위해 지하공간(깊이 약 4m)에 위치한 정화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소결핍으로 1명 사망
- (2)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슬러지 제거작업(부상4명) '24.5.27.(월) 15시경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내부에서 청소(슬러지 제거 등)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중독되어 4명 부상
- (3)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사망1명, 부상1명) '24년 7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조 내부(깊이 약 3.7m)에서 분리막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황화수소 중독 1명 사망, 1명 부상

■ 축산농가

- (1) 양돈 분뇨 집수정 배관 청소작업(사망 2명) '22년 9월 양돈농장에서 집수정 배관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으로 2명 사망
- (2) 양돈 분뇨 이송배관 청소작업 (사망 1명) '23년 9월 양돈농장에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등

- (1)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 관련 맨홀 진입작업(사망 2명) '23년 9월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원인 조사용역을 위하여 유량계 기계설치 가능여부 사전 조사를 위해 맨홀에 진입했다가 산소결핍으로 2명 사망
- (2) 상수도 맨홀 내부 누수 부위 보수작업(사망 1명, 부상 2명) '23년 7월 정수장에서 상수도 맨홀 내부(깊이 약 4~5m) 상수관로 누수 부위 보수작업 중 유해가스(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 2명 부상(*사망자는 구조를 위해 진입)
- (3) 오수관 맨홀 내부 준설작업(사망 2명) '23년 5월 막힌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깊이 5.7m)에 진입하여 작업 중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 (4) 하수도 맨홀 내 준설공사 (사망) '24년 6월 하수도 준설공사를 위해 맨홀 아내로 내려갔다가 유해가스(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

밀폐공간 질식사고

단 한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부족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장소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폐수처리, 맨홀, 축산분뇨처리 설비**에서
 질식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화조



분뇨처리장



맨홀



원료 저장탱크



침전조



반응기



식품발효·저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용접 배관내부

치명적인 질식사고, 3대 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밀폐공간 사전 파악!**

02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0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 착용!**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밀폐공간,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① **밀폐공간** 반드시 사방이 꼭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② **신청방법** ☎ **전화 1644-8595** 로 연락주시거나 또는 **QR코드** 를 통해 원콜(One-Call)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미 원콜(One-Call)서비스란?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① 측정자 양성 교육, ② 장비대여 및 사용 방법교육 ③ 기술지도(밀폐공간 발굴 등)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

측정자 양성교육



장비 대여



가스농도 측정 | 기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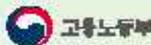


① 가스측정기 ② 환기팬 ③ 송기마스크

02 신청방법 및 절차



※ 밀폐공간 작업 3일 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5.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빠르게

▶ 2025년 1차 추경을 통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선

- (지원 인원 확대) 10만명 → 10.7만명 *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 포함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18·24개월 → 6·12·18·24개월차 지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추가 편성(7,772억원 → 8,026억원, 254억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7천명을 추가 지원
 - 이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
- 한편,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후에도 근속인센티브지원, 직장적용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여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5

대학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을 더 늘리고
청년근속인센티브 6개월부터 빠르게 지급

	유형	유형
<p>+7,000명</p> <p>지원대상</p>	<p>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p>	<p>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p> <p>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p>
<p>지원요건</p>	<p>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p>	<p>기업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p> <p>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p>
	<p>+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p>	
<p>지원내용</p>	<p>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p>	<p>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p> <p>청년 재직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 (최대 480만 원)</p>
<p>참여방법</p>	<p>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p>	<p>고용24에서 신청</p> <p>기업 기업이 청년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p> <p>청년 청년이 해당기간 근속 후 신청 필요</p>
<p>문의</p>	<p>▲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국번없이 1350</p>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 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 원**



6. 아빠보너스제 인상 (육아휴직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5.27~7.7, 41일간)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일명 『아빠 보너스제』

-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22년까지 한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9.1.1.	· (1~3개월) 월150만원(통상임금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50%)	· (1~3개월) 월250만원(통상임금100%) · (4~12개월) 월120만원(통상임금50%)
'22.1.1.	· (1~12개월) 월150만원(통상임금80%)	· (1~3개월) 월250만원(통상임금100%) · (4~12개월) 월120만원(통상임금50%)
'25.1.1.	· (1~3개월) 월250만원(통상임금100%) · (4~6개월) 월200만원(통상임금100%) · (7개월~) 월160만원(통상임금80%)	· (1~3개월) 월250만원(통상임금100%) · (4개월~) 월120만원(통상임금 50%)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

【예시】

- ※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2.1.1.~'22.3.31.)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5.1.1.~'26.3.31.) 사용시(기간연장 요건 충족 가정)
 - ▶ 개정전: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 수급 → 총 1,800만원
 - ▶ 개정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 ('25.1.1.~'25.3.31.)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 ('25.4.1.~'26.3.31.)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 → 총 2,520만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기한: 2025. 7. 7.까지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 시 이유 명시
 - *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 제출하는 방법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 (전자우편) 여성고용정책과 ryulimited@korea.kr
 - (팩스제출): 044-202-8054